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히 13:5-6).

:

내가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힘찬 용기를 가지고 “주께서 나의 도우미이니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두려움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마치 어떤 어린이가 아빠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당당히 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설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두려움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당신이 겁쟁이가 아니라면 정면으로 부딪히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의 감정은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당신에게 아무것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을 때 “그러나 이 순간에도 주께서 나의 도우미이니…”라고 말해보십시오. 당신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말합니까? 아니면 당신의 상황을 합리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맞추려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댈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생 길에 악한 일이나 잘못된 일이 발생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좌절과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면서 마치 큰 거인 앞에 숨어 있는 메뚜기 같다고 느낍니다. 하나님마저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의 ‘으뜸음’을 듣고 그 노래를 따라 찬양하는 것을 배웠습니까? “주는 나의 돕는 자”임을 선포하며 자신감에 넘칩니까? 아니면 난관과 어려움에 항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히 13:5-6)

두려움 이기기

오늘 묵상은 어제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say so’(이렇게 말씀하신다) 하시기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들 때 지금 이곳에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더해 6절 말씀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이 말은 그저 빈말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원문의 제목은 “God’s say-so”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두려움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상황에 끼워 맞추거나, 이런 저런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길에 악한 일이나 잘못된 일이 발생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붙드느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곤혹스러운 때는 악한 일들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챔버스는 오늘 묵상에서 ‘좌절과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치 자신을 커다란 거인 앞에 놓인 ‘메뚜기’처럼 하찮은 존재로 여기곤 합니다. 이런 것을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크고 장대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보고 난 후, 정탐꾼들이 돌아와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라고 보고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God’s say-so” 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 당면한 어려움이 거인처럼 다가온 것입니다. 두려움과 좌절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챔버스는 오늘 묵상에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으뜸음’을 듣고 그 노래를 따라 찬양하는 것을 배웠습니까? ‘주는 나의 돕는 자’임을 선포하며 자신감에 넘칩니까? 아니면 난관과 어려움에 항복합니까?”

영어로 'key-note'라고 하는 으뜸음은 해당 음계의 첫 음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다 장조'에서는 '도'가 으뜸음이고, '사 장조'에서는 '솔'이 으뜸음입니다. 이렇게 으뜸음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알아야 악보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으뜸음'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이 "God's say-so"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난관을 만나더라도 그 음계에서부터 시작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의 책 [디트리히 본회퍼 묵상 52]에 나오는 글입니다.

배가 파도를 타고 항해하다가 힘든 시련에 부딪혔습니다. 폭풍이 점점 더 거세게 불어오면서 작은 배는 파도의 노리개가 되었습니다. 하늘은 칙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 파도가 그를 덮쳤습니다. ... 배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손발이 마비되었고, 모든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그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천상의 무리가 승리를 외치는 듯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스도가 배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가 배 안에 계시다." 이 소리가 들려오자마자 두려움은 사라졌고, 파도가 멈췄으며,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배는 조용한 바다를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배 안에 계셨습니다!

본회퍼는 **마태복음 8장**의 풍랑을 만나 배 위에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은 폭풍 속에서 좌절하고 두려움에 떨 때, 주님이 이 배에 같이 계신다는 것만큼 희망찬 소리가 있을까요? 오늘은 **시편 54편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묵상하며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십 광야'에 숨어 있을 때, 자신을 밀고 하려는 자들이 넘쳐나고 가까운 사람들마저 원수로 변하는 상황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냈던 시입니다.

1.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2.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입으로 아뢰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3.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셀라)
4.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복돋우어 주는 분이시다.
5. 원수가 나에게 악한 짓을 하였으니, 주님이 내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이다. 주님의 진실하심을 다하여 그들을 전멸시켜 주시기를 빈다.
6.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선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7. 주님이 나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 주셨으며, 나의 이 눈으로, 원수들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김병삼 목사의 한줄 노트 좌절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묵상 질문 당신의 삶의 '으뜸음'은 무엇인가요? 당신을 슬프고 안타깝게 하는 것도, 기쁨과 믿음을 주는 것도 으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묵상레시피 ■ 시편 54편 + 히브리서 13:5-6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무엇에 탄원하고 있습니까? (1-2절)

3절에 담긴 다윗의 상황, 감정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신가’ 묵상을 통해 받은 위로를 음미해 보십시오. (4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으로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6절)

주의 이름으로, 주의 힘으로(1절)

‘이름(히, 쉘)’과 ‘힘(히, 껴부라)’은 곧 하나님의 실재이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부름을 시작으로 ‘구원하소서, 변호하소서, 들으소서, 귀 기울이소서’ 절박한 마음을 담은 호소력 있는 기도를 드린다. 상황을 세세히 아뢰는 다윗은 탄식에서 신뢰와 확신(4절)으로 돌아선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4절)

다윗은 반역자로 낙인 찍혀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난처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 다윗을 피하거나 밀고했다. 다윗은 거부와 배신의 처참한 상황과 고독 속에 하나님께 시선을 돌린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마음과 생각을 전환한다.

낙헌제(6절)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제를 뜻한다. 특별한 약속이나 서약과 관계없이 드리는 일종의 화목제, 친교제로 볼 수 있다. 다윗은 상황에 압도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 선하심을 이유로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삶, 제일 앞에 두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차이를 보여준다.